

화성시
도서관 소식지

풍경

제46호

두근두근
나눔화성
2022. 04. 2009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공공도서관

태안도서관 · 삼곡도서관 · 병점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송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송림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노을빛도서관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편집위원 서은화, 김보라, 강소연, 최지연, 차지현, 박치영, 최보영,
이호성, 서영지, 최예슬, 송민정, 김민지, 유정미, 도은정

발행일 2021년 7월 7일

발행처 화성시문화재단

편집 도서관기획홍보팀, 도서출판인쇄마을 & J.Design

발행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책, 사람, 마을을 품는
화성시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속도

08 도심 속 지식의 숲,
왕배푸른숲도서관 개관

12 메이크 박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도서관의 온도

18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우주로 가는 도서관, 곽재식 작가

22 사서, 요즘 취미
오늘도 오릅니다. 산을!

24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 우리 가족 소통과 이해의 시간,
진안도서관 가정의 달
- 도서관, 시민과 함께 꿈꾸다.
시민 서포터즈 1기
- 시인이 사는 도서관, 송산도서관

도서관의 시선

34 **사서특화칼럼**
화성에서 즐기는 착한여행

38 도서관 주간 그리고
세계 책의 날

42 **화성여지도**
화성 속 오감 여행

45 **사서의 북컬렉션**

- 더운 여름 스릴있게
- 법의 생일, 제한절
-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 광복절

도서관의 뉴스

50 • 온라인 전시관
•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51 • 화성시 책읽는 50+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독자참여 및 안내

52 가로세로 낱말퀴즈
예술편

53 독자 후기 코너

54 도서관 이용안내

CONTENTS



08 도심 속 지식의 숲, 왕배푸른숲도서관 개관

12 메이크 박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도서관의 속도

도심 속 지식의 숲, 왕배푸른숲도서관 개관



지난 4월 29일,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기다려온 왕배푸른숲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왕배푸른숲도서관은 건립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공간 구성부터 도서관 이름 공모 까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지어졌다.

신도시 속, 왕배산 자락에 있는 '도심 속 지식의 숲'
왕배푸른숲도서관을 함께 둘러보자.



도서관의 속도



1층 어린이자료실은 생동감과 개방감이 특징이다. 곡선 서가를 따라 책을 고르거나 빈백에 앉아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다. 높은 층고 덕분에 시야가 넓다. 자료실과 연결된 '힐링 라운지'는 왕배푸른숲도서관의 특징적인 공간이다. 공연·작가 강연 등이 진행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¹⁾ 체험을 할 수 있다.



2층 종합자료실은 곳곳에 식물을 비치하고 조명을 활용해 아늑하게 구성했다. 열람실이 없는 대신 청소년 존, 독서 존과 같은 개방형 열람 좌석을 마련하였다. 왕배푸른숲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미디어'와 연계해 스마트 기기를 설치한 점도 특징적이다.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전자신문, 오디오북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안내 태블릿 대여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책과 동영상 콘텐츠 열람도 가능하다.

1) 텍스트, 그래픽,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눌러 이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디지털 컴퓨터 기반 시스템 매체를 이르는 말



개관기념행사
Jazz In The Library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개관일부터 약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작가 강연·공연·전시 등의 개관 기념행사가 열렸다. 공연 ‘바로크 음악의 봄’에 참여한 이용자는 “왕배푸른숲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문화공연을 접하고 힐링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은 매일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왕배푸른숲도서관은 특화 주제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숲 미디어 학교’와 세대별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에 관한 작가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왕배푸른숲도서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소식을 받아보길 바란다.

글 | 김민지(왕배푸른숲도서관 사서)



책을 만들어볼까?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메이크 북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은
‘메이크 북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메이크북스(Make Books)’란

도서관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사업을 말한다.

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예술’과 연계해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상 속의 창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새로운 공간을 꾸미고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글의 기획부터 완성, 책의 디자인과 제본까지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을 만드는 공간: 메이크 북스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에 조성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크 북스>는 시민을 위한 창작(創作) 공간이다.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책 창작에 필요한 제본기, 재단기, 프레스, 커팅기 등의 다양한 책 편집 도구와 표지와 내지를 디자인하는 Adobe CCT 프로그램 PC를 마련했다.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는 '길 위의 인문학'과 '독립출판' 정규 프로그램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인 '예술제본' 공간으로 활용된다.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1: 길 위의 인문학 '창작의 인문학'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강연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생한 인문학 체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길 위의 인문학'은 올해 390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창작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용자를 맞이한다.

'길 위의 인문학: 창작의 인문학'은 6월 12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특강 및 탐방, 후속 모임 등 총 12회차로 운영한다. 독립서점 '모모책방' 강진영 대표는 '독립출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독립출판에 대해 알려준다. 정영수 소설가와 문학동네 김한솔이 편집자는 '나도 작가', '편집자의 일'이라는 키워드로 글쓰기와 편집에 대해 강연한다. 추후 화성시에 있는 독립서점 탐방, 수강생이 발간한 책의 출판기념회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독립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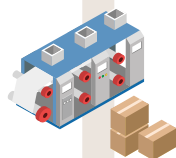
창작의 인문학 수업



창작의 인문학 토론



독립출판 1기 강좌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2 : 정규 프로그램 '독립출판'

도서관에서 자체 기획한 상·하반기 정규 프로그램도 있다. '독립출판 1기'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회차로 운영한다. '아홉프레스' 대표이자 『나의 포근했던 아현동』을 쓴 박지현 작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생들은 작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책 내용을 구상하고,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표지를 제작, 책을 발간한다. 현재 1기가 진행 중이며 9월에 메이크 북스 정규 프로그램 '독립출판 2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책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관하는 방법 : 예술제본

예술 제본은 책이나 기록물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장정하여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본의 형태이다. 기계로 만드는 대량 제본 방법이 아닌, 손으로 직접 책의 형태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작업이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특화 주제인 '예술'과 관련, 동·서양의 제본 방법을 다루는 '예술제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파리에서 예술 제본을 수학하고, 예술제본 아틀리에를 운영 중인 이보영 예술제본가가 강연을 통해 노하우를 알려준다. 동양 제본 수업에서는 한지를 접어 표지를 완성하는 전통 오침안정법을, 서양 제본 수업에서는 실로 책을 엮는 수제 양장 제본 과정을 교육한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은 특화 주제인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메이커 공간을 마련하여 책을 사랑하고 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 | 차지현(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사서)



18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22 사서, 요즘 취미

24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도서관의 온도

연재 코너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우주로 가는 도서관



곽재식(작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옆집에 사는 어린이와 친해졌다. 학교의 학급 조직에서 무슨 부장이던가를 하던 친구였으니까, 대충 유 부장이라고 부르면 적당하겠다. 처음에는 유 부장 집에 가서 블록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하면서 놀았지만, 우리는 곧 다른 분야에서 서로 굉장히 죽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었다.

아마 단초는 유 부장이 먼저 던졌던 것 아닌가 싶다. 유 부장은 비행기를 좋아했다. 나는 사람이 비행기 같은 기계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유 부장의 집에 가면 비행기에 관한 책이 수십 권은 있었고,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비행기 모형도 여럿 있었다. 가끔 같이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 다니는 것

이 보이면, 유 부장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저건 A300이네.”, “저건 DC10이구만.”라고 하면서 비행기 기종을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우리 반의 어떤 아이들은 그런 유 부장의 버릇을 보고 “잘난 척 한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유 부장 편이었다. 하늘을 보고 비행기 기종 알아보는 것이 어째서 잘났다는 느낌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유 부장이 옮겨 대는 비행기 이야기에 나는 점차 빠져들었다. 그런데 원래 친구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라, 유 부장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SF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이야기나 미래의 로봇 이야기 같은 것을 열심히 지켜져 댔던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차 우리 생각이 겹치는 영역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주제 한 가지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로켓이었다.

제트 엔진과 비슷한 원리를 가진 불을 뿜는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기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것이 마침내 우주까지 날아가는 것. 우리는 죽히 1년쯤은 로켓 광기에 휘말려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만들고 싶은 로켓의 그림을 그리며 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켓의 내부 구조나 로켓에 장치하면 유용할 부품 같은 것을 상상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직접 작은 로켓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따지고 보면, 불장난에 이끌리는 어린이들의 심리에서 별로 멀지 않은 발상이었다. 우리는 깡통에 로켓 연료가 될 만한 고순도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것을 집어넣은 다음, 폭죽에 쓰이는 화약을 적당히 붙이고 심지를 달아 불을 붙이면 로켓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깡통의 모양과 구조, 불이 붙는 방식을 적당히 조절한다면 몇십 미터 정도는 깡통 로켓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금 생각하니, 초등학생 둘이서 화염병을 개조해서 유탄발사기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과 비슷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구상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기체가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그 순간에만 혹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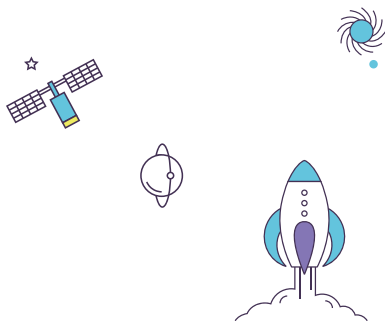
우리는 사람이 없는 넓은 공터에서 실험해야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로
켓 발사장 부지를 물색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깡통이 그냥 아무
렇게나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깡통 로켓을 터
뜨렸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며 지속적
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
았다. 아마도 유 부장의 신중한 성격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문제를 푼다고 깨달
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의 로켓 설계도를 개량할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으
며, 그곳에 가면 온갖 책들이 다 모여 있고 그
것을 모두 무료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어느 주말에 긴긴 언덕길을
지나 동네 도서관에 찾아갔고 거기에서 어린
이용으로 나온 로켓에 대한 책을 하나하나 읽
어 나갔다. 공책을 들고 가서 책을 읽으며 얻
은 유용한 지식을 메모해서 옮겨 두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도 공책에 써 두었다.

반나절 그렇게 책을 뒤지고 나면, 점심때는
도서관 휴게실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었다.
그리고, 서로 책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을 공
유하며, 제대로 움직이는 로켓을 만들 방법을
개발해 보려고 했다. 토요일 도서관 휴게실에
는 중·고생들이나,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어
른들이 많았는데, 그사이에 섞여서 우리도 뭘
가 지식의 세계에서 열심히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좀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기
도 했다.

우리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도서관에 갔고,
마침내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 중에 로켓에 관
한 이야기가 있는 책들은 모조리 다 읽을 정도
가 되었다. 결론은 자료도 너무 부족하고, 로
켓을 억지로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겠
다는 건전한 깨달음이었다. 그래도 크기를 작
게 만들고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다만 십 미터
라도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는 미련을 갖기도 했다. 그렇지만, 얼마 후 유
부장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의 로
켓 개발 계획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십 년쯤인가가 지나서 나는 우연히 유 부장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 유 부장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하지만, 그래도 그때 같이 로켓 만들겠다고 매일 고민하고 도서관 다니면서 책 찾아보고 하던 것이 어린 시절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이라고 회고했다.

내 감상도 유 부장의 회상에서 멀지 않다. 나는 심지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한 기분에 종종 빠져든다. 지금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내용 자체

에 재미가 생겨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고 메모장을 끄적이면서 이런저런 구상에 심취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주제로 무슨 논문이나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잊게 되고, 이런 연구로 남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도 잠깐 벗어나게 된다. 재미있는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그 문제가 풀릴 때의 멋진 순간에 대한 상상이 마음속에 가득 찬다. 이런 재미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 유 부장과 같이 도서관에서 로켓 연구를 하던 때와 별로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곽재식 작가 소개

연평균 2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다. 소설, 과학 교양서, 수필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2009년 200여 명의 독자가 모여 출판한 『곽재식 단편선』을 '내 인생의 책'으로 꼽는다. 2021년 『가장 무서운 예언 사건』,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을 출판하며 『심야괴담회』와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에서 7월 '미래과학'을 주제로 곽재식 작가와 만난다. 『곽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 『괴물 과학 안내서』를 화성시민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7월 9일, 23일 새로운 클립이 업로드된다. 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검색하거나 QR코드로 검색하면 된다.





사서, 요즘 취미

오늘도 오릅니다. 산을!

취미가 생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취미라고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 필자가 요즘 같이 등산 한 번 가자는 게 안부 인사가 되어버릴 만큼 등산에 폭 빠졌다.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산을 잘 타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등산은 '취미'로써 좋아하는 단계니까.

어릴 때부터 산이라면 질색을 하던 필자가 주말만 되면 홀로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산을 오르게 된 계기는 남들처럼 거창하지도 않다.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5월의 봄, 우연히 보게 된 북한산이 그냥 너무 예쁘고 멋져 보였다. 예쁘고 멋져 보여서, 단지 그 이유가 다였다.



처음 오른 산, 좋았던 산

처음 오른 산은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다. 호기롭게 올랐지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내온 시간 때문인지 분명 정상은 눈앞에 보이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고생 끝에 도착한 정상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아직도 산을 오르고 있으니 첫 산행치곤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닐까.

많은 산을 오른 건 아니지만 가장 좋았던 산을 꼽아보자면 북한산이다. 5월의 북한산에 반해 등산을 시작했기에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을의 코앞에 올랐던 북한산은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 정상 인근에 다다르면 펼쳐지는 바위 능선 구간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이 그렇게 맑을 줄이야! 아직 북한산을 가보지 못한 독자가 있다면 꼭 한번 다녀오길 추천한다.

계속 오릅니다. 산을!

산은 필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반복되는 일상에 주말은 집에서 축 늘어져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그런 주말이 이제는 매주 전국의 명산을 오르는 날이 되고 한 주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많기에 산과 함께 할 앞으로의 날들이 무척 기대된다.

필자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재밌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를 생각이다. 오늘도, 내일도 산을!

등산 초보자를 위한 꿀조언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산행 시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등산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산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있다. 장시간 체중을 싣고 고르지 못한 지형을 걷기에, 접지력이 뛰어나고 앞코와 측면의 내구성이 좋은 등산화를 추천한다. 자기 발보다 5~10mm 정도 큰 것을 골라 끈을 조인 상태에서 발등, 복사뼈가 닿지는 않는지 발뒤꿈치가 뜨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짧은 산행이라도 고지의 낮은 기온과 산행 중 흘린 땀으로 체온을 뺏기기 쉽다.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소재와 추위에 대비한 방풍·방수 의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낭을 멜 때는 무거운 물품은 등과 가까운 곳, 배낭의 위쪽에 두면 무게가 허리와 어깨로 70%, 30%로 분산돼 피로를 덜 수 있다. 산행용 스틱은 무릎관절에 실리는 하중을 줄여 관절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행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 | 이호성(삼괴도서관 사서)

우리 가족 소통과 이해의 시간, 진안도서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많다.

매년 5월 화성시도서관에서는 가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화성시민의 건강한 가족의 달을 지원하고자,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역시 진안도서관에서는 ‘가정’을 특화 주제로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을 다룬 작가특강을 운영하고,
다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였다.



숲속 사진관, 이시원 저, 고래벳속 출판



두근두근 그림책 놀이 운영 사진

두근두근 그림책 놀이

이시원 작가의 『숲속 사진관』은 다양한 형태의 동물 가족을 그린다. 대가족인 미어캣 가족에서부터 아빠와 아기들로 이루어진 고릴라 가족까지. 두근두근 그림책 놀이는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키워주고자 계획했다. 소통의 매개체로서 그림책을 활용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읽고 노래 부르며 구성된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진안도서관 가정의 달
박소현 작가 특강

사춘기 감정 수업 | 박소현 작가 특강

사춘기. 예민해지고 까칠해진 자녀의 변화에 부모님은 당황스럽다. 가족학 박사이자 『욱하는 사춘기, 감성치방전』, 『까칠한 내 아이, 마음 제대로 이해하기』 등을 집필한 박소현 작가는 진안도서관을 찾아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법을 주제로 화성시민과 만났다. 박소현 작가는 십대 아이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과 특징을 전문가의 눈으로 소개하고 분석했다.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감정을 제대로 읽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공감력 증진, 감정 조절 등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안했다. 현실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보호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던 특강은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었다.



진안도서관 가정의 달
그림책 원화전시

레오, 나의 유령친구 | 그림책 원화전시

『레오, 나의 유령친구』는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을 쓴 맥 바넷의 글과 『시장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뉴베리 상과 칼텍콧 아너 상의 영예를 안은 크리스티안 로빈슨의 그림이 담겼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레오, 나의 유령친구』는 서로 다른 존재인 레오와 제인의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낸 로빈슨의 그림으로 검은색과 푸른색 단 두 가지 색만 이용했음에도 많은 이용자의 시선을 끌었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 행사는 코로나19로 예년과는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났지만, 그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수강생들의 열기에 힘입어 진안도서관은 다채로운 가정 특화프로그램으로 화성시민과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글 | 박치영(진안도서관 사서)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1기

도서관, 시민과 함께 꿈꾸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5월 29일(토)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시민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시민서포터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시민 공동체다.

발대식은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포터즈 단원 32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간소히 진행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시민서포터즈가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길 바란다”라고 격려하며 서포터즈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였고 단원들은 선서로 화답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서관 시민서포터즈 1기의 발족 소식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지역문화를 바꾼다”라며 다시 한번 서포터즈의 활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1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도서관 도슨트, 소셜 인플루언서, 시민 북 큐레이터, 북 리더(Book Reader), 그린 라이브러리언 5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화성시민과 도서관을 잇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될 예정이다.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활동



도서관 도슨트

21년 새로 개관한 왕배푸른숲도서관에 대한 소개 및 실별 안내 등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활동

활동 장소 왕배푸른숲도서관



소셜 인플루언서

블로그 기사, 카드 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발 빠르게 전하는 활동

활동 장소 온라인



시민 북 큐레이터

월별 선정된 주제에 맞는 추천도서를 솔직한 서평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에게 제안하는 활동

활동 장소 온라인



북 리더(Book Reader)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

활동 장소 한글책: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중앙이음터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영어책: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목동이음터도서관,
진안도서관



그린 라이브러리언

도서관 화단 조성 및 월별 화단 관리를 통해 도서관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

활동 장소 봉담도서관, 태안도서관, 송산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
도서관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참여 후기

- 1 화성시 도서관 도슨트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화이팅!
- 2 이번 발대식을 보며 화성시장님이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번 활동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다
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봉사를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 3 북리더 1기로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영어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 4 1기로서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앞장 서겠습니다!
- 5 화성시 도서관 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서관 서포터즈 1기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
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6 화성시를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7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귀한 몸으로 시작하는 기본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요. ^-^
- 8 열심히 참여해서 깨끗하고 멋진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9 화성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다짐도 하
게 되었습니다.
- 10 사명감이 새로워진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기본입니다.
- 11 모두가 참여하는 멋진 도서관이 되도록 참여하겠습니다.



그린 라이브러리언은 활동도서관 3곳에 화단을 조성하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연이어 시작될 서포터즈의 행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

글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시인이 사는 도서관, 송산도서관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송산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지역 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작가와 도서관 이용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문학 수요를 창출, 문학의 가치 공유를 위해 시작됐다. 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작가는 도서관에서 상주하며 개인 창작활동과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학의 가치를 전한다.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이도훈

송산도서관에는 이도훈 시인이 상주한다. 이도훈 시인은 2015년 월간 『시와표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20년에는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며 최근까지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시집 『맑은 날을 매다, 2018』가 있다. 이도훈 시인은

송산도서관과 인연이 깊은 작가이기도 하다. 송산도서관 시동아리 『온새미로』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디카로 쓰는 글

송산도서관은 상주작가 이도훈 시인이 진행하는 문학 프로그램 ‘디카로 쓰는 글’을 5월 23일 개강하여 연말까지 약 8개월 간 운영한다. 수업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디카시, 디카에세이 등의 짧은 글쓰기를 해본다. 일상에서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말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기념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에 강의가 업로드되므로 등록을 놓친 시민들은 참고 바란다.



#디카시란?

디카시란 디카(디지털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이다. 디지털카메라(주로 스마트폰)로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의 느낌을 시로 표현한다. 오늘날 뉴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학 형태라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사진과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SNS 환경에 최적화된 시적 양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주작가 이도훈 시인의 한마디 & 담당자 최선형 사서의 한마디

@ 상주작가 이도훈 시인의 한마디

문학이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 분야는 다른 장르보다 더 활발하게 대중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의 형태이며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디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이 시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디카시인 것 같습니다.

@ 담당자(최선형 사서) 한마디

화성지역에 많은 문인이 활동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도훈 시인은 화성 지역 문인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데, 지역 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이도훈 시인의 '디카로 쓰는 글'
강의 다시보기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공식 유튜브

글 | 서영지(송림이음터도서관 사서)



34 사서특화칼럼

38 도서관 주간 그리고 세계 책의 날

42 화성여지도

45 사서의 북컬렉션

도서관의 시선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화성에서 즐기는 착한여행, 함께하실래요?

답답했던 나날들, 지쳐있던 심신을 충전할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를 소개합니다.



봉담도서관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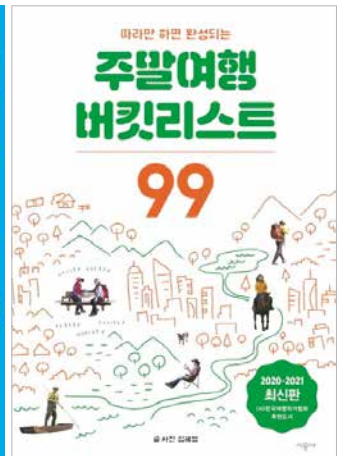
봉담도서관은 '여행' 특화 도서관으로 종합자료실 내에 '여행자료코너'와 '여행특화코너'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지역별 여행 정보가 한 곳에 담긴 '여행자료코너'는 시도별 최신의 여행 지도와 팸플릿을 제공한다. '슬기로운 화성여행'에서는 화성 여행지를 섬과 바다, 자연·생태, 역사, 문화 등으로 나눠 이목을 끈다. '여행특화코너'에서는 최신의 정보뿐 아니라 5개년의 여행 간행물을 두어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봉담도서관 여행자료코너



봉담도서관 여행특화코너



김혜영 작가의 『주말여행 버킷리스트 99』는 훌쩍 떠나고 싶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여행자들에게 선포 손을 내민다. 산이나 바다가 아닌 감성적인 카페와 트렌디한 서점이 궁금한 여행자라면 『52주 여행, 남몰래 아껴둔 서울경기 255』의 김미경, 손준우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도 좋을 것 같다.

신나고 빅터지는 안전한 화성 투어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2021년 시티투어 운영
 *코로나19 인해 변경된 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운영일 정기투어 - 토,일, 공휴일 전후 / 단체투어 - 화~일 운영 시간 - 1차 오전투어 - 10:00 ~ 14:00 (4시간), 체험 및 개별 식사시간 포함 - 2차 오후투어 - 12:00 ~ 16:00 (4시간) 대상 5~15명 내외, 개인 및 단체 개별 집합 운영 *소그룹별 4인 이내 접수 (직계가족 5명 이상 가능) 집결 당일 체험지나 정해진 개별 집결장소 (계절차량, 대중교통 이용) *2021년도는 버스 미운영 문의 정기투어(토/일) : 031-366-7110, 4028 단체투어 : 031-366-8921 예약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정기투어 예약 개인장소 예약 및 이용문의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여 이름, 생년월일, 구분, 개인정보발령증과 작성 후 업로드	참가비 - 8,000원 ~ 25,000원 (식대 미포함, 체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참가자 모두에게 버스 미운영에 대한 체험비 10,000원 별도 지원 *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제 가능 참가비 할인 [화성시관광진흥조례] 제12조 2항 시티투어이용료 감면 대상 할인 적용 - 100%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유족중시), 국한거주생할수급자 확인서 지참자 - 70% : 경관(신분증), 장애인(신분증)과 종종장애인 보호자 1인 - 50% : 아동·청소년 (만4~24세), 화성시 다자녀가족 미성년자녀와 부모, 자상위계증 확인서 지참자 * 무급 : 만 3세 이하 (체험 제외)
--	--

발역관리

- 투어 3~5일 전에 투어참가자 개인 문진표 작성
- 식당은 개별(가족, 팀) 이용
- 집결지, 체험지 내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 전월 15일에 악형 투어 발별일정을 홈페이지에 예약자만 투어 참가
- 무산 등 수산가 발생, 참가자 간 간격 1m 이상 거리 유지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책임여행이다. '하루'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3가지의 약속을 함께 지켜야 한다. 첫째, 모든 참여자는 1시간 이상 걸으며 여행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화성의 재래시장과 특산물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여행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여행 중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가지 약속을 새기며 지난 6월 화성시 시티투어에 참여한 필자의 '하루'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랑도예원 도예 체험



숲속숫대마을 생태투어

화성의 문화와 공정여행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된 화성시티투어, 그 중 '신박한 문화예술투어'에 참여했다. 도자기 체험과 생태투어로 이루어진 '신박한 문화예술투어'는 봉담도서관 인근 예랑도예원에서 시작했다. 도자기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문양을 찍고 각인을 새겨 만든 연필꽃이는 3주 후 택배로 받아보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생태투어를 위해 이동한 숫대마을은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소개로 시작했다. 숲의 주인은 동·식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숲속의 동물 발자국과 나무의 생존법,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배웠다. 화성시 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퀴즈는 여행의 묘미를 더했다.

책임이 따랐던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는 그 의미를 알아가며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 흔쾌히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는 데 동의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글 | 최보영(봉담도서관 사서)

도서관 주간 그리고 세계 책의 날

‘도서관 주간’은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는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표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예년과는 다르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조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해나가기 위해 도서관 주간 첫날인 4월 12일을 국가기념일인 '도서관의 날'로 지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되어 '세계 책의 날'로 통용된다.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된 '세계 책의 날'은 독서와 저술 그리고 저작권 증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시도서관에서는 4월 도서관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시로 물든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동탄북 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화성시민의 만남을 주선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속에 '시란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나태주 시인의 위로가 전해지길 바랐다. 어릴 적 누군가의 시를 통해 위로받았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도서관에 접목해 '블라인드 북' 행사도 진행했다. 사서가 건넨 키워드만을 골라 시집을 대출하는 행사로 설렘과 동시에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호응이 끊이지 않았다.



병점도서관과 송림이음터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소리극으로 이용자의 이목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청각에 무게를 둔 공연을 준비했다. 이용자들은 극의 전개를 스스로 상상하고 머리 속에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더불어 책을 읽는 즐거움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산도서관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 날’과 연계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의 홍수열 작가와 재난 장편동화 『30 킬로미터』의 김영주 작가의 강연을 진행했다.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염두에 둔 특강은 시민의 일상에 그대로 옮겨가 친 환경 커피클레이 체험에도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코로나19로 화성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제한되었다. 사서들은 2021년 도서관 주간 주제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쉽표 하나, 도서관'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고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화성시민과 도서관, 사서가 어우러진 전시·공연·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기회 축소를 경험한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임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글 | 최예슬(정남도서관 사서)

화성 속 오감 여행

: 사서의 시선으로, 화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설립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이다. 영유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관과 공연장, 강의실, 기타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이 체험 가능하며 새롭게 단장한 공룡체험관과 공룡AR트릭아트전,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 등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볼거리들이 풍성하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하며, 체험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100% 사전예매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거리를 찾는다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를 추천한다.

소개 | 송민정(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사서)
문의_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031)5183-3260





어촌체험, 백미리 마을

어촌체험 마을인 백미리 마을은 서해와 인접해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 맛 또한 좋아 백미 또는 백미리라 불리게 되었다.

백미리 마을은 해산물 중에서도 바지락으로 유명해 '바지락 캐기 체험'을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거리가 추가되었다. '망둥이 낚시'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가족 나들이 체험에 제격이다. 초보자도 손쉽게 망둥이를 낚을 수 있다고 하니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꼭 체험해보길 바란다.

화성시 서부에 위치한 백미리는 2015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선정한 '행복한 어촌' 1등급 마을이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백미리 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봄에는 낙지잡이 체험이, 겨울에는 굴 따기 체험이 준비되어있다고 하니 미리 눈여겨봐도 좋을 듯하다.



소개 | 이호성(삼괴도서관 사서)
문의_화성시 백미리 마을 031)357-3379



문화농촌체험마을, 창문아트센터

화성시 남양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는 폐교(창문초등학교)를 활용해 예술가들의 창작 스튜디오와 함께 미술·농촌·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문초등학교는 1952년 개교하여 1999년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폐교되었다. 오늘에는 총 9명의 예술가를 주축으로 미술·농촌·생태 복합 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창문아트센터에 들어서면, 옛 학교의 모습과 함께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농촌생태체험장에는 봄의 파종과 모내기, 가을의 추수 축제 등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이 진행된다. 학교 밖 숲속 학교 산책길과 수화리 마을 풍경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창문아트센터는 성인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술·농촌·생태 복합 체험공간인 창문아트센터에 많은 관심 바란다.

소개 | 최미선(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사서)
문의_화성시 창문아트센터 031)355-2206



사서의 북컬렉션 1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더운 여름 스릴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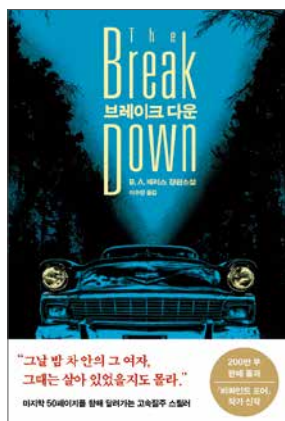
7월은 여름 절기 중 작은 더위가 오는 '소서'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다. 코로나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엔 제한적인 요즘 房콕(방에 콕 박혀있다)하며 더위를 식혀줄 스릴러 도서 3권을 추천한다.

「브레이크 다운」은 2017년 영국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소설'로 선정된 B. A. 패리스의 책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 위험하다는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숲속으로 차를 몰던 캐시가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 번 들면 놓을 수 없는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쌔쌔 인 더 워터」는 영화 「어바웃 타임」의 배우 캐서린 스테드먼의 화려한 소설 데뷔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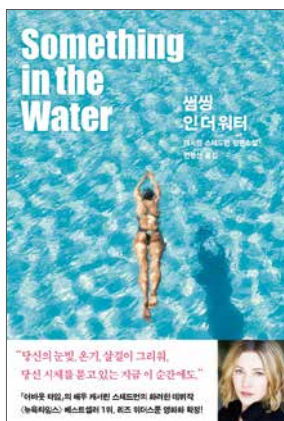
신혼여행으로 간 보라보라섬에서 돈과 다이아몬드, 권총이 든 가방을 발견하며 벌어진 일을 다룬 심리 스릴러다. 보라보라섬이라는 여름과 걸맞는 배경이 인상적이다.

「사라진 밤」은 스릴러의 제왕 할런 코벤의 신작이다. 15년 전 기차 사고로 쌍둥이 동생 리오를 잃고 같은 날 여자친구 모라가 행방불명 돼버린 형사 냅의 이야기다. 15년만에 여자친구의 행적을 추적하며 그날의 일을 파헤치게 된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방영 예정인 이 책은 글과 영상 두 가지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소개 | 도은정(다원아름터도서관 사서)



브레이크 다운



쌔쌔 인 더 워터



사라진 밤

사서의 복컬렉션 2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법의 생일, 제헌절

다가오는 7월 17일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기도 하다.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완성하여, 조선왕조 개국일인 7월 17일에 공포됐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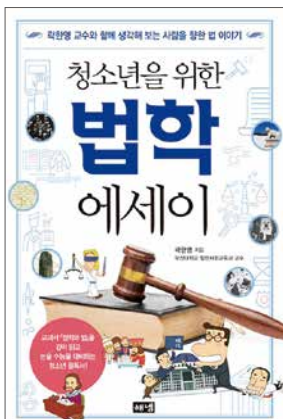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써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고 10월 9일인 한글날은 문화유산인 한글 반포를 축하하는 날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작용의 근본이 되는 규범이다. 일상에 스며든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도 모두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7월을 맞아, 제헌절이란 어떤 의미이고 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소개 | 유정미(남양도서관 사서)



선생님, 헌법이 뭐예요?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사서의 북컬렉션 3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 광복절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영화 『암살』의 실제 주인공인 남자 현 열사 정도가 우리가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일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여성들은 많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에 새겨지지 못했을 뿐, 그 시기에 생생히 존재했다. 3.1운동 때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결코 남성만이 아니었으며, 유관순은 아누네 장터에 홀로 나온 여학생이 아니었다. 3.1운동뿐 아니라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들의 이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있는 건 아닐까.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들춰지고 그려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찾아 기억하고 불러줘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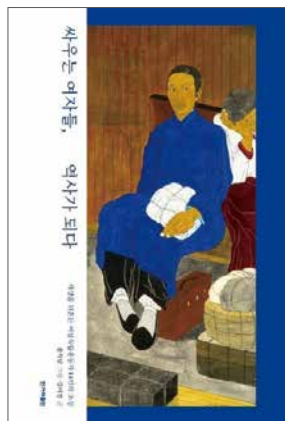
소개 | 송민정(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사서)



태극기를 든 소녀



나는 여성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50 온라인 전시관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51 화성시 책읽는 50+

삼괴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도서관의 뉴스



화성시민이 쓰고 도서관이 담다, 온라인 전시관

2021년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화성시민과 만났다. 온라인 전시관은 도서관과 함께 화성시민이 쓰고 엮은 창작물들을 전시한다. 2015년을 시작으로 함께 읽은 책을 담은 '독서감상문 공모전 작품집', 세상에 하나뿐인 11권의 '1인 1책 쓰기', 코로나19를 담은 '단어사전'과 '타일벽화아트'까지.

함께 기록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문을 연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온라인 전시관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야기가 담기길 기대한다.



임시휴관,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병점근린공원을 품은 병점도서관은 올해로 16년이 된 병점지역의 대표도서관이다. 안화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병점도서관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잠시 쉬어간다.

병점도서관은 2021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재개관 예정이다. 임시휴관 기간에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니 인근의 진안도서관과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화성시 책읽는 50+

화성시에서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책읽는 50+' 사업을 시작한다. 책 속의 한 줄을 필사하는 '책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은 책 한 권과 독서노트, 에코백을 선물 받는다.

화성시도서관에는 책읽는 50+를 위한 특별 서가를 운영하며 함께 책 읽는 기쁨을 나누고자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삼괴도서관, 태안도서관, 목동이음터도서관, 남양도서관, 다원이음터도서관에서 운영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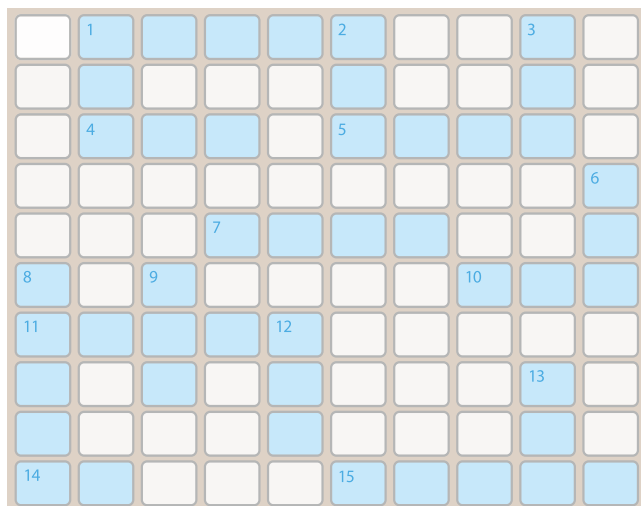


삼괴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7월 삼괴도서관에서는 디지털기기 취약 계층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화성시민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총 8회로 예정된 교육은 디지털 기초 교육과 생활 교육으로 나뉘며, 기초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다룬다. 디지털 정부24, 모바일 금융 그리고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디지털 라이브러리 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동아리 운영도 계획되어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삼괴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 예술편



가로

- 1 미국의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이자 색상 회사인 팬톤에서 2020년 지정한 '올해의 색'
- 4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
- 5 14~16세기에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의 용어
- 7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신비한 미소가 유명한 초상화
- 10 20세기 초 유럽에 나타난 전위적 경향의 하나로 강렬한 원색과 거친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미술 사조, 미술운동
- 11 '아름다운 서체'란 뜻의 그리스어로 '손으로 그린 문자' 즉,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움과 개성 있는 글자체를 뜻하는 용어
- 14 콜로세움, 판테온, 트레비 분수 등이 있는 이탈리아 수도이자 최대의 관광명소
- 15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 꾸속의 도원을 그려달라는 요청으로 3일만에 그린 산수화

세로

- 1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 황금 색채의 거장으로 불리며 『키스』, 『아담과 이브』 등이 대표작
- 2 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파리의 심장이라고도 불린다. 투명한 유리 피라미드가 인상적인 박물관
- 3 『독일 레퀴엠』, 『헝가리 춤곡』을 쓰고 바흐, 베토벤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3B 작곡가인 인물
- 6 인상주의 이후 색채 위주의 표현주의와 대조적으로 형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사물을 여러 시점과 입체적으로 표현한 미술
- 8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성당 천장화〈천지창조〉와 조각 〈피에타〉, 〈다비드〉 등이 대표작
- 9 『니벨룽겐의 반지』를 쓰고, 그를 기리는 '바이로이트 음악제'가 열린다. 문학과 음악, 춤 무대 장치 등 종합 예술 '악극'을 최초로 만든 인물
- 12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아비뇰의 처녀들〉, 〈게르니카〉 등이 대표작
- 13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던 기관

독자 후기 코너



Reviews

도서관 소식지 제46호

풍경 즐겁게 보셨나요?

『풍경』은 2006년부터 발행된 화성시도서관 소식지입니다. 매년 4회 발행되는 계간지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46호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더 풍성한 『풍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는 분기별로 총 10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립니다.

오른쪽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ㅌ	꺾	ㅌ	ㅎ	음 ₅₁				ㅏ	ㅊ ₁₁
	ㅓ				ㅍ				ㅊ
	ㅕ ₁₁				ㅓ		ㅓ		ㅊ
					ㅓ ₁₁	ㅓ	ㅓ	ㅓ	ㅊ ₁₁
ㅓ	ㅕ	ㅓ ₀₁					ㅓ ₆		ㅓ ₈
ㅓ			ㅓ	ㅓ	ㅓ	ㅓ ₁			
ㅓ ₉									
	ㅓ	ㅕ	ㅓ	ㅓ ₅		ㅓ	ㅓ	ㅓ ₁	
	ㅓ			ㅓ				ㅓ	
	ㅓ ₁			ㅓ ₁	ㅓ	ㅓ	ㅓ	ㅓ ₁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주 말
방역시간(도서관 내 체류불가)		13:00 ~ 14:00 / 18:00 ~ 19:00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 전자정보실	09:00 ~ 18:00	
		열람실	09:00 ~ 22:00
공공어린이도서관 (동지나래 / 두빛나래)	자료실 / 전자자료실	09:00 ~ 18:00	09:00 ~ 18:00
공립작은도서관	샘내, 기아행복마루, 비봉	화 ~ 토 09:00 ~ 18:00	
	양감, 마도, 팔탄, 봉담커피앤북	월 ~ 금 09:00 ~ 18:00	

※ 왕배푸른숲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운영시간과 동일
(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하는 기준입니다.)

㉡ 휴관 안내

정기 휴관일	도서관 명
매주 월요일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봉담도서관, 삼괴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태안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남양도서관, 다원이음터도서관(10개관)
매주 금요일	병점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중앙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7개관)
매주 일요일, 월요일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3개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양감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봉담커피앤북작은도서관(4개관)

정기 휴관 : 지정 요일, 법정공휴일 / 임시 휴관 :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하는 날

㉢ 회원가입 안내

구 분	내 용
대상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 경기도 소재 직장, 학교의 재직자 및 재학생
구비서류	-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재학생은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오프라인 회원증 발급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 구비서류 지참 하여 도서관 방문(자료실 안내데스크) → 본인확인 후 회원증 발급 - 온라인 회원증 발급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서재 > 나의 정보] 메뉴 접속 → [온라인 회원증 발급]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 온라인 회원증 발급

☎ 도서대출 안내

구 분	내 용
대출규정	• 1인 1관당 7권(통합 42권) 자료 대출 가능 • 대출기한 14일(1회 7일 연장가능 단, 예약도서 연장불가) ※ 대출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
연체규정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90일 이상 연체 시 6개월 대출 정지
도서분실	• 동일도서로 구입 후 반납 • 분실도서의 품절 및 절판 시 지정도서로 대체 변상

전자자료 이용 안내

전자자료

운영내용 PC,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 (e-book, 오디오북, 음악, 전자잡지)

이용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 PC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 전자도서관 어플
설치 → 도서관 검색 및 설정 → 로그인
후 전자책/오디오북 대출

학술논문원문(DBpia)서비스

운영내용 홈페이지를 통한 학술논문원문 무료 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학술논문원문 바로가기

국회 논문 열람

운영내용 도서관 내 지정된 PC에서 국회 논문 원문
무료 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도서관 방문 → 지정 PC에서 논문 열람

기타 서비스 안내

희망도서 신청

운영내용 월 2회 이용자 자료 구입 및 신청자 우선
대출 서비스
1인당 3권(권당 50,000원 이하)가능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내용 화성시 관내 소장도서를 신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1인당 3권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화성시 도서관' 채널 검색 후 추가

인스타그램 @hwaseonglib

페이스북 @hwaseonglib1

블로그 blog.naver.com/hwaseongl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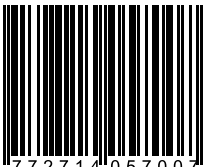
유튜브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9 772714 057007

ISSN 2714-0571